

인터뷰

“새로운 일감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 조성 등에 역점 둘 터”

- 대의원 만장일치로 제26대 회장에 재선임, 타 산업과의 융·복합 노력 등 다짐 -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최삼규 이화공영(주) 대표가 다시 한 번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선출되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제26대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최삼규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적정 공사비 보장, 각종 규제 개선, 회원 서비스 개선 등과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삼규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그래왔듯이 향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건설 일감 창출, 적절한 이윤 보장 및 기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 조성, 담합 및 하도급 비리 등 부조리를 유발시키는 제도적 문제점 개선 등에 역점을 둬으로써 회원사가 마음 놓고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말 회원사들의 신임 아래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해결사로 다시 발탁된 최삼규 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저를 다시 추대해주신 뜻이 업계의 화합을 통해 업계가 처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임을 알기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협회 운영에 회원 참여 폭을 넓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회 사무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건설산업은 해외건설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대한건설협회의 수장으로 재추대된 데도 이러한 업계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에 이어 향후 3년 간 협회를 다시 이끌어가시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오.

제가 지난 2011년 3월 제25대 대한건설협회장으로 취임 후 어느덧 3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년 간 회원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소명감으로 일하다보니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매우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저를 다시 추대해주신 뜻이 업계의 화합을 통해 업계가 처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임을 알기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연계하여 타 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건설 일감 창출, 적정한 이윤 보장 및 기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 조성, 담합·하도급 비리 등 부조리를 유발시키는 제도적 문제점 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회원사가 마음 놓고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회 운영에 회원 참여 폭을 넓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 서비스를 극대

화할 수 있도록 협회 사무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실 때 가장 인상에 남으신 활동과 가장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수년간 건설산업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수익성 악화, 자금난과 일감 감소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저와 협회 임직원이 업계의 수익성 제고와 선진적인 발주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결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및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운영을 이끌어낸 것과 이중·삼중 처벌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애로를 겪는 건설업체에 대한 사면(2012년 1월)을 이끌어낸 것 등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업역을 초월해서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 환경 전문 공사 등 건설 관련 개별 공사의 분리 발주 의무화 법안 발의, 경제 민주화에 편승한 과도한 규제 입법 등에 따라 지난 수년간 소모적인 논쟁으로 에너

인터뷰

“건설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소모성 무상 복지보다는 생활 밀착형 SOC 등 물량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들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를 낭비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공사 실적이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인 91조 3,000여 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전방위적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회는 올 사업 중점 목표를 건설시장 정상화와 국내 수주 130조원 달성에 두고 역량을 집중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 밝힌 내수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민자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건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모성 무상 복지보다는 생활 밀착형 SOC 등 물량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익성의 부족 또한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공사비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어 시공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적공사비제도 도입과 표준품셈 현실화 등으로 공사비가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규모 공사의 실행률 악화로 지역 중소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공사를 축소하는 한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 하한선 상향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외에도 공기 연장 추가 비용 미지급,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공사비 삭감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해 적정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산업은 이제 고성장 시대의 공급 위주 시장에서 벗어나 저성장 시대의 수요 위주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산업이 IT·BT 등 첨단 기술 및 문화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미래 산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중소 건설사 지원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건설산업이 IT·BT 등 첨단 기술 및 문화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미래 산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계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계 내부적으로도 건설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되어 부단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재편을 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살아남기 위한 지구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사 위기의 주범 중 하나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할인 분양, 전세 전환 등을 통해 일부 자금이라도 회수 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동결 등을 통해 한파를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병행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 수주 전략을 버리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과 단기 소요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수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여 건설뿐만 아니라 환경·레저·용역사업·빌딩 임대 등 생존을 위한 지구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부정적인 산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이미지 개선 사업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평가 절하돼 왔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건설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업계 차원에서 2012년 1월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과제를 연구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였고, 건설산업의 안전·친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내부로부터 자발적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PCC 제작, 우수 건설 사진전, 라디오 공익 광고, 미담 사례집 배포, 각종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건설산업과 건설인들의 노력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오해도 상당 부분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산업이 첨단, 녹색 성장 시대를 적극 이끌고 해외 시장 개척과 국민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국민 속으로 더욱 다가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CERIK

글 : 이형우 편집장